

파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9.

I. 일반개황	2
II. 경제동향	3
III. 정치·사회동향	11
IV. 국제신인도	16
V. 종합의견	1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796천 km ²	G D P	1,748 억 달러 (2010)
인구	185.5 백만 명 (2010년)	1 인 당 GDP	942 달러 (2010년)
정치체제	연방의회제	통화단위	Pakistani Rupee(PR)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 (달러당)	85.19 (2010)

- 파키스탄은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서 동쪽으로 인도, 서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 북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아라비아해와 인접하고 있음.
-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과 인도간 인도 독립 교섭 과정에서 무슬림 연맹이 이슬람교도가 많은 동·서 파키스탄에 독립국을 요구하였고, 1947년 인도국민회의파, 무슬림연맹, 영국 정부간 합의에 따라 인도 독립 및 동·서 파키스탄의 분리 독립이 이루어진 후 영국 자치령이었으나 1956년 헌법 제정 후 이슬람 공화국이 성립되면서 대통령제가 실시됨.
- 1973년 대통령·총리제의 신 헌법 통과로 알리 부토가 총리로 선출된 후 부토 정권의 독재가 지속되던 중 1977년 지아 울 하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1988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독재를 지속하였음. 이후 알리 부토의 딸 베나지르 부토가 총리로 취임한 후 1996년 부패혐의로 해임될 때까지 집권하였으며, 1997년 나와즈 샤리프가 총리로 취임하였으나 군부와의 갈등으로 1999년 육군참모총장 겸 합참의장인 페르베즈 무샤라프가 무혈 쿠데타로 2001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정부형태는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변경됨.
- 2008년 총선으로 파키스탄인민당이 주도하는 연정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무샤라프 탄핵을 진행하면서 동년 8월 무샤라프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였음. 이후 베나지르 부토의 남편인 알리 자르다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후 현재까지 집권 중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제성장률	5.7	1.6	3.6	4.1	2.4
재정수지 / GDP	-5.8	-7.6	-5.3	-6.3	-5.9
소비자물가상승률	7.6	20.3	13.6	13.9	12.1

자료: IMF, EIU

□ 홍수 피해로 경제 회복세 둔화 전망

- 2001년 9월 미국 9·11테러 사태 이후 무샤라프 정권의 대미 협조 정책으로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경제지원이 가시화되면서 광범위한 개혁 및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 국내소비 급증, 섬유부문 투자 등에 힘입어 2004~07년까지 6~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함.
- 그러나 이슬람 세력과의 분쟁으로 인한 사회 불안 가중 등에 따른 투자 감소,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국내 수요 감소, 주요 수출품인 섬유부문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이 2008 회계연도(2007년 7월~2008년 6월) 중 1.6%로 급락하였음.
- 2009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정되고 IMF로부터의 차관, 양자, 다자간 지원 등에 따른 외화 유입 증가로 3.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10 회계연도 중에도 4%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2011 회계연도 중에는 2010년 8월 중 발생한 최악의 홍수 피해와 높은 물가에 따른 소비 둔화로 경제성장률이 다시 2%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 상승 압력 증대

- 2008년에는 식료품 가격 인상, 보조금 삭감에 따른 연료가격 급등, 수입관세 인상, 공공요금 인상, 파키스탄 루피화 약세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3%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국내수요 감소, 식료품 가격의 상승세 둔화 등으로 하반기 중 한자리 수로 하락하면서 전년대비 13.7%로 완화되었음.
- 2009년 하반기 중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국제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회복, 정부의 확대재정정책 등에 따라 2010 회계연도 중에는 13.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홍수에 따른 농작물 피해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0년 9월 중 16개월 이래 최고치인 15.7%를 기록하는 등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였음.
- 그러나 2011년 1월 1일 단행하였던 정부의 유류가격 인상이 5일 만에 철회되면서 2011년 중 물가는 전년보다 다소 하락한 12.1%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적자 규모 확대

- 파키스탄은 2001년에 대규모 대외채무재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세수 기반, 비효율적인 세원 관리, 인도와의 분쟁 악화 및 국내 사회 불안 등에 따른 국방비 지출(세수의 약 25%) 확대, 대규모 대외채무에 따른 원리금상환(세수의 약 33%) 과다 등으로 재정 운영에 큰 제약을 받아 왔으며,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해 옴.
- 2008년에는 식료품 및 연료 보조금에 대한 지출 증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 급감, 정치 불안에 따른 정부의 미숙한 경제 운용 능력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당초 목표인 GDP의 4%를 크게 초과한 7.6%를 기록하였음.

- 2008년 12월 IMF 대기성차관 도입 조건에 따라 정부가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개발 지출을 축소시켰으나, 국방비, 치안, 교육 부문 등의 지출이 증가하여 2009년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5.3%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전기세 보조금 폐지 등 재정적자 규모 축소를 위한 정책의 추진 지연과 주요 세원인 통신 및 금융산업 부진에 따른 조세 수입 감소로 목표치인 5.1%보다 높은 6.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8월 발생한 막대한 홍수피해로 IMF가 2011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홍수 발생전 목표치인 4%에서 4.7%로 완화해 주었으나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 지출 확대와 일반관매세 도입 연기 결정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목표치를 상회한 5.9%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업 및 섬유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

-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노동인구의 40%가 농업에 종사하는 등 여전히 파키스탄의 가장 중요한 산업임.
- GDP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섬유산업이 주를 차지하고 있음.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농작물인 면화를 기반으로 한 섬유부문이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면서 파키스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면화는 페스트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는 물론 가뭄과 홍수에 취약한 작물임에 따라, 면화 작황에 따라 섬유산업의 변동성이 매우 심한 편임.
- 파키스탄은 중국, 인도, 미국에 이은 세계 4위의 면화생산국이나 섬유 생산을 위한 초과수요로 일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

으며 안정적인 면화 공급을 통한 섬유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2015년까지 1,300만 베일에서 2,000만 베일로 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베일(bale): 목화 한 꾸러미 단위로 1베일당 목화 170kg임.

- 그러나 2010년 8월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주요 곡창지대이자 면화 생산지인 편자부 주를 비롯한 국토의 20%가 침수되면서 10~15%에 이르는 경작지 유실과 곡물저장시설 피해로 주요 수출품인 쌀, 면화 등 농작물 수출에 차질을 입기도 하였음.

□ 과도한 외채의존도

- 파키스탄은 계속되는 경상수지 적자의 보전을 위해 국제기구, 미국, 영국 등으로부터의 외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재정적자 또한 채권 발행 및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통한 방법으로 보전해 옴.
- 누적된 외채로 인한 채무 부담 가중에 따라 파리클럽으로부터 6차례(1972년, 1974년, 1981년, 1999년, 2001년 1월 및 12월)에 걸쳐 채무재조정을 받은 바 있으며, 당행의 EDCF 또한 파키스탄에 대해 3차례 채무재조정한 바 있음.
- 파키스탄은 2001년 이후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관련한 공조를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로부터 양허성 장기차관 등 지원을 받고 있음.
- 2008년말 유동성 위기시 미국, 일본 등 20여개의 국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으며 IMF의 대기성차관 113억 달러 또한 분할 집행되어 왔음.

- IMF는 이러한 파키스탄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대기성차관 지원시 거시경제 안정화 조건으로 연간 30억 달러에 달하는 전기세 보조금 철폐 등을 통한 재정수지적자 규모 축소와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 금지, 외환보유고 보강을 위한 통화정책 운용 등을 요구해 왔음.

□ 열악한 인프라 환경

- 파키스탄의 인구는 2010년 기준 1억 8,550만 명으로 인프라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취약한 세수 기반 및 비효율적인 행정 등으로 인한 투자 부족으로 인프라가 열악함. 2010년에 발생한 홍수로 2,0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도로, 가옥 등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짐.
- 정국 및 치안 불안 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 및 늦은 업무 처리 관행 등도 인프라 건설을 위한 외국인 투자 증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나. 성장 잠재력

□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 15세에서 65세의 인구가 전체의 59%로 저임의 노동력이 풍부하여 섬유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유리함. 또한 도시인구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09년 전체 인구의 36.6%에서 2035년 50% 이상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빠른 도시화가 파키스탄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석탄, 천연가스 등 자원매장량 풍부

- 최근 파키스탄의 상당지역에서 구리, 금, 은 등 금속광물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동부 신드주 타르 사막에도 1,750억 톤 규모의 석탄광산이 발견되었음.
- 이외에 형석, 마그네사이트, 알루미늄 등의 광석과 천연가스 매장량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열악한 인프라와 기술부족, 정치, 사회적 불안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부진 등으로 활발한 자원 탐사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다. 정책 성과

□ IMF 차관지원 조건에 따라 거시경제 정책 수립

- 파키스탄은 2008년말 승인된 IMF 대기성차관 협정으로 거시경제 안정화 조건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함.
- 그러나 전기세 관련 보조금 폐지 등 세제 개혁의 지연 등과 함께 재정수지 적자 규모, 물가,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 규모 등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왔으며, 이에 따라 대기성차관의 추가 집행이 지연되고 있음.

□ 적극적인 투자·무역자유화 노력

- 자본과 기술력 등이 취약한 파키스탄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세 감면, 과실송금 보장, 행정 편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 및 행정 관료의 부재 등이 큰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2005년 발효된 스리랑카와의 FTA를 시작으로 2006년에는 서남 아시아자유무역협정(SAFTA)이 발효되었으며, 동년 11월에는 중국과, 2007년에는 말레이시아와 FTA를 체결하였음. 최근에는 걸프협력회의(GCC)와 FTA 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등 파키스탄은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중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f
경 상 수 지	-8,286	-15,665	-3,993	-1,490	36
경상수지 / GDP	-5.8	-9.5	-2.5	-0.8	0.0
상 품 수 지	-10,587	-17,002	-10,270	-11,416	-10,325
수 출	18,188	21,214	18,347	21,463	29,029
수 입	28,775	38,216	28,617	32,879	39,354
외 환 보 유 액	15,689	8,903	13,770	17,210	21,396
총 외 채 잔 액	40,737	49,337	53,602	56,121	59,394
총외채잔액 / GDP	28.5	30.0	33.1	31.7	28.1
D. S. R.	8.9	8.7	14.5	11.6	9.1

자료: IFS, EIU, GDF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

- 2008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라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 및 관련 제품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국제유가 급등과 원자재 및 자본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액 상승으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었음.
- 2009년에는 IMF 대기성차관 지원조건에 따른 긴축정책 시행으로 인한 수입 감소, 국제 유가하락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2008년 GDP의 9.5%에서 2.5%로 크게 축소되었음.

- 2010년에는 면사, 면직물 등 섬유 제품, 제약품 등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수입액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폭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테러와의 전쟁지원을 위한 국제 사회의 지원 등으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 감소와 해외근로자 송금의 꾸준한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0.8%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에는 홍수 피해 재건을 위한 물품 수요 증가 및 국내 식료품, 원면(raw cotton) 등의 공급량 급감으로 인해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쌀과 면직물 등의 수출 차질로 상품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인직접투자 부진 지속

- 파키스탄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인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안 지속으로 투자가 저조한 편임.
- 2009년 중에는 통신, 전력, 수송 부분에 대한 투자 감소로 파키스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대비 56.1% 감소하였으며, 2010년 중에도 지속된 정치 불안과 지난 수년간 외국인직접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통신 분야에 대한 인프라 사업이 일단락되면서 FDI 감소세가 지속되었음.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동향

□ 자르다리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도

- 8년간 통치하던 무샤라프(Pervez Musharraf) 대통령의 사임 이후 2008년 9월 실시된 파키스탄 대통령 선거에서 2007년 12월에 암살당한 부토(Benazir Bhutto) 전 총리의 남편이자 파키스탄인민당(Pakistan People's Party: PPP) 공동의장인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Asif Ali Zardari)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

※ 자르다리 대통령은 부토 전 총리 집권시절 뇌물수수 등 각종 부패 혐의에 자주 연루되어 11년간 수감생활을 한 바 있으며, 부토 전 총리 암살 이후 파키스탄인민당(PPP)의 공동의장이 되어 부토 전 총리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반 무샤라프 정서 등에 힘입어 2008년 2월에 총선에 이어 대선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음.

- 최근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 정책 실패 및 치안 문제 악화, 홍수 피해에 대한 느장 대응 등으로 국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음.

□ 연정 붕괴 가능성에 따른 정치적 불안 가중

- PPP는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 전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 무슬림리그(Pakistan Muslim League-Nawaz: PML-N)와의 정치적 대립과 함께 주요 연정 상대인 통일민족운동당(Muttahida Quami Movement: MQM)과도 갈등을 빚어옴.

- MQM은 PPP와 IMF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계개혁, 정권의 부정부패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 왔으며, MQM은 정치 기반인 경제도시 카라치에서 발생한 정치적 폭력 사태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 온 것에 대해 정부에 큰 불만을 가져왔음.

※ 1947년 파키스탄 건설 이후 인도에서 카라치로 온 사람들의 후손을 대표하는 MQM과 북서부 탈레반 본거지에서 온 파슈툰 민족을 대변하는 아와미 민족주의당(ANP)은 카라치에서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어 왔음. 2010년 8월 MQM 소속의 주 의원의 피격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유혈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양당 모두 PPP의 연정 상대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 비난을 받아 왔음.

- MQM은 2011년 1월 초 정부의 연료비 인상을 이유로 연정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연정이 붕괴될 위험에 처했었으나, 정부가 연료비 인상을 철회하자 5일만에 연정에 복귀하였음.

※ 전체 342석 중 PPP(127석)은 MQM이 연정에서 탈퇴할 경우 과반수(172석)에서 12석이 부족하게 됨.

- 그러나 자르다리 대통령의 지도력 부재와 연정내 갈등으로 PPP 정권이 지속적인 정치적 안정을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재정지출 감소를 위한 내각 축소

○ 파키스탄 정부는 세제 개편을 연기하는 대신 재정적자 축소에 대한 방안으로 재정 지출 감소를 위해 2011년 2월 초 장관 등 60명으로 구성된 내각을 해산하고 대부분 PPP 소속 의원들인 22명으로 축소된 내각을 새로 구성함.

- 18차 개헌에 따르면 내각 인원은 현재 442명으로 구성된 의회 인원의 11% 미만이어야 함에 따라 법적으로 내각 축소는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제1야당인 PML-N도 내각 축소를 강력히 요구해 왔음.

□ 정치적 혼란 및 경제난에 따른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전망

○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도 하락, 연정내 갈등에 따른 정치 불안 가중과 경제난으로 군부의 영향력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현 군사 최고 지도자인 아쉬파크 카야니(Ashfaq Kayani)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해 왔으며, 군부가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과거와 같이 군사쿠데타의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전적인 책임을 지려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2. 사회동향

□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한 사회불안

- 파키스탄 서부 소수종족연방보호지역(Federally Administered Tribal Areas: FATA) 및 북서국경지방(North West Frontier Province: NWFP)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무장세력들이 탈레반 세력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2001년 미국 9.11테러 이후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의 대 테러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파키스탄 내 이슬람 무장세력과 대치함에 따라 이슬람 무장세력의 공격이 증가하고 자살 폭탄테러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정치 불안 및 경제난을 반정부 세력화 기회로 악용할 가능성

- 2010년 8월 중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1,600여명이 사망하고 약 2,0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나 임시주거지 마련과 구호품 전달이 충분치 않고, 식수, 식량, 생필품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슬람 무장세력이 탈레반 세력의 핵심 거점인 편자부 지역은 물론 산악지역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펼침.
- 높은 물가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 여당의 지도력 부재 등을 빌미로 이슬람무장세력이 반정부 세력화의 기회로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3. 국제관계

□ 미국과 전략적인 동맹 관계 유지

-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 경쟁적인 핵실험 단행 후 소원하던 미국과의 관계는 2001년 9월 미국 테러 사건 이후 파키스탄이 전통적 우방관계였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아닌 미국의 대테러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함.
- 파키스탄은 인도를 견제하고 미국 및 서방 국가로부터 경제, 외교, 군사적 지원을 받고자 미국의 탈레반 축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중요성 등을 이유로 파키스탄을 지원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파키스탄군이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 내 탈레반 소탕에 소극적임을 비판해 왔으며,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이 인도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 입장을 보이자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양국간의 관계가 최근 다소 소원해 지는 양상을 보였음.
- 미국의 대테러 활동을 위해서는 파키스탄과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 지속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2011년 1월 초 미국 정부는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 경제, 정보 지원을 확대할 방침임을 다시 밝혔으나, 1월 말 파키스탄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미국 영사관 직원의 신병 처리 문제를 두고 양국간 갈등이 다시 재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인도와의 평화협상 재개 움직임

- 파키스탄은 인도와 1947년 분리 독립시부터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 종교 대립, 방글라데시 독립, 카슈미르 영토문제 등을 둘러싼 3번의 전쟁을 포함하여 잦은 분쟁을 겪어옴.

- 2001년말 이슬람 무장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인도 의사당 공격으로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으나, 미국 등의 중재로 양국간 평화협상이 재개된 이후, 2003년 11월 카슈미르 통제선에 대한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이후 양국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양국간 신뢰회복 조치들이 전개되어 왔었음. 그러나 2008년 11월 뭄바이 테러의 배후에 파키스탄 무장단체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으로 인하여 양국간 대화가 중단된 바 있음.
- 2009년 7월에 양국간 포괄적 대화가 재개되면서 뭄바이 테러 공동조사 합의와 테러 대응 공조에 합의하였으며, 2010월 4월 부탄에서 개최된 SAARC 정상회의시 양국 정상이 관계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양국간 관계 개선이 기대되었음.
- 2010년 7월 중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반정부 무슬림 시위대와 인도군의 충돌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관계정상화 합의 후 후속 조치를 위한 협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2011년 2월 초 양국 외무장관이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현안에 대해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하는 등 또 다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평화협상 재개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중국과 우호적 관계 유지

- 인도와 구소련에 대한 파키스탄과 중국의 공통적인 반감으로 인하여 양국은 서로를 중요한 우방으로 인식해왔으며, 중국이 파키스탄 앞으로 원자력 및 미사일 기술을 전수하는 등 군사관계를 비롯하여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고 있음.
- 2006년 11월에는 양국간 FTA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고속도로 건설, 금·동광 개발, 전력사업 등 120여개의 프로젝트에 약 1만 여명의 중국 노동자가 투입되고, 중국의 파키스탄 내 투자 규모가 2010년 중 150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등 중국은 파키스탄에 중요한 우방국으로 자리 잡음.

- 최근 홍수 피해에 대해서 중국이 역대 최대 지원금인 2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고 의료팀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해복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11월 중 자르다리 대통령의 중국 순방시 최근 미국의 인도 관계를 의식하여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과 파키스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전략적 이해관계를 재강조 하는 등 향후 양국간의 우호적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 태도

□ 독자적인 외채 상환 어려움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대외채무 부담이 과중하여 독자적으로 외채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2001년 9월 미국 테러 사건 이후 무샤라프 대통령이 집권기반 강화 및 경제난 해결을 위해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주요 선진국 들의 원조 지원과 채무재조정 성과를 얻어 내었음.
- 국제사회의 대 파키스탄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해제(2001년 9월) 및 총 30억 달러의 경제지원 자금 제공(2003년 6월), IMF의 13억 달러 규모의 빈곤 퇴치 및 성장촉진 차관(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PRGF) 공여, 파리클럽의 125억 달러 공공채무에 대한 파격적인 채무재조정 합의, EU의 대 파키스탄 일반 특혜 관세제도 부여 등이 있으며 이외에 여러 국제기구 및 국가들이 원조를 제공하였음.
 - 파키스탄은 취약한 대외채무 상환 능력으로 6차례에 걸쳐 파 리클럽으로부터 채무재조정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당행도 EDCF 자금에 대해 3차례 리스케줄링을 실시한 바 있음.

- 자르다리 대통령 집권 이후 정치 불안 고조,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등 경제상황 악화, 재정적자 증가 등의 사유로 2009년 4월 OECD 국가신용도평가 회의에서 국가신용도 등급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으며, 2010년 4월 회의에서는 7등급을 유지함.
- 2008년 10월 Moody's는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및 미국,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적기에 지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외환보유액이 급감함에 따라 파키스탄에 대한 외화표시 장기채권등급을 B2에서 B3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2010년 11월 중에는 최근 유동성 개선을 반영하여 등급에 대해 B3, '안정적(Stable)' 전망을 유지하였음.
 - 그러나 세계 개혁 지연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에 대한 우려와 물가 급등으로 2011년 2월 중 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S&P는 IMF의 대기성차관 지원에 따라 파키스탄의 대외 유동성이 개선되고 재정적자가 감소하면서 대외지급불능 위험이 낮아짐에 따라, 2009년 8월 외화표시 장기채권등급을 CCC+에서 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 2010년 11월 IMF의 차관 집행 및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로 유동성이 개선된 것을 반영하여 외화표시 장기채 등급에 대해서는 B- 등급과 '안정적(Stable)' 전망을 유지한 바 있음.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bank : 제한적 인수가능
-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Atradius : 승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파키스탄은 비동맹 중립외교 노선에 따라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유지하였으나 경제관계 비중 증대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중시해 왔으며, 2003년 무샤라프 대통령, 2005년 아지즈

총리 등 파키스탄의 주요 인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등 양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파키스탄의 정치, 경제적 불안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대파키스탄 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최근 국내 기업들이 파키스탄 민자발전사업을 포함한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홍수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가 무상원조를 제공하고 기업 및 민간단체들이 구호활동에 동참하는 등 향후 양국간 경제, 외교 관계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교역현황(2010년) : 총 11억 8,100만 달러 (수출 7억 8,100만 달러, 수입 4억 달러)
 - 파키스탄과의 교역규모는 세계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2008년 14억 7,000억 달러에서 2009년 11억 1,200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중에는 전년대비 6.2% 증가한 11억 8,100만 달러를 기록함.
- 해외직접투자현황(2010년 9월말 현재 투자누계 기준) : 32건, 4,872만 달러

VI. 종합 의견

- 파키스탄은 2008년말 유동성 위기 이후 IMF로부터의 대기성차관 및 주요 선진국의 원조자금 지원에 따른 자금 유입과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에 따른 외환보유액 증가로 2010 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 중 4.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그러나 2011 회계연도 중에는 2010년 8월 중 발생한 최악의 홍수 피해와 높은 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다시 2%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가 국제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회복 등으로 최근 재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취약한 세수기반 및 대규모 국방비와 대규모 대외채무에 따른 원리금상환 등에 따른 재정지출 부

담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 지출 확대와 일반판매세 도입 연기 결정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는 2011년 중 IMF가 제시한 수정목표치인 GDP 대비 4.7%를 상회하여 5.9%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정책 실패, 치안 문제 악화 등으로 자르다리 대통령 정권의 기반 약화가 지속되고 연정내 갈등으로 연정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슬람 무장세력과의 대치로 자살 폭탄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등 사회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대규모 홍수로 2000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도로, 가옥 등의 피해가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사회가 더욱 불안해짐.
- 파키스탄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대외 원조 자금에 의존하여 왔으며, 대외채무 상환 능력 부재로 6차례에 걸쳐 파리클럽으로부터 채무재조정을 받는 등 취약한 외채상환능력을 보임.
-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와 IMF차관 및 국제사회 원조자금 유입으로 단기적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S&P와 Moody's는 2010년 11월 파키스탄에 대한 외화표시장기채권 등급을 각각 기존의 B-, B3를 유지하였으며, 등급전망 또한 '안정적'(Stable)을 유지하였으나, 2011년 들어 연정 붕괴 위기로 연료 보조금 폐지 철회 및 IMF가 요구하고 있는 세제개혁 연기 결정으로 동국에 대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짐.

조사역 이 순 재 (☎02-3779-5705)
 E-mail: soonjaelee@koreaexim.go.kr